

[종합·해설]

총선 D-19

현역의원·386 손못댄 민주 공천

유망 신인 탈락... 전문가 영입도 실패

현역 141명 중 교체율 22% 불과 물같이 무색

중앙무대 검증된 신인들 규정 틀 간혀 고배

통합민주당은 20일까지 전국 153곳 공천자를 확정했다. 애초 비리 전력자 공천 심사 배제를 내세우며 요란하게 출발한 공천심사위원회는 마지막까지 개혁 공천을 외쳤지만 그 성과는 기대 이하였다. 절반 가량의 현역의원이 물갈이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막상 공천 끝결을 열어보니 개혁공천 취지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특히 참신한 인물로 분류된 후보들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전문가 그룹 영입도 실패했다는 평이다.

유망한 정치신인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구시대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상당수의 인사들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여론조사의 허점을 낸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요란하기만 했던 현역 물갈이=153곳의 공천이 마감된 가운데 민주당 소속 현역의원 141명 중 탈락한 의원은 31명(불출마 선언 7명 포함)으로 현역 교체 비율은 22%에 그쳤다. 마지막 날은 전략 공천 결과에 따라 현역 탈락자들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애초 목표치인 30%를 넘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39%의 현역 교체율을 보인 한나라당의 물갈이 성과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더욱이 '386' 현역 의원 대부분도 생활해 공천 세신을 무색케 했다.

호남의 경우 총 31개 선거구 중 한병도·이광철·채수찬·이상렬·신종식·체일병·정동재·김태홍·김홍업·양형일·이영호 의원 등 11명이 탈락했고, 불출마를 선언한 김원기·염동연 의원 등 2명을 포함하면 현역 교체율이 41.9%에 달했다. 이 빙 자리는 전직 의원(광주 동구 박주선, 광주 서구 김영진, 고흥·보성 박상천)이 그 자리를 채웠다.

새롭게 등장한 전문가 출신 신인이라곤 이용섭(광주 광산을)·장기철(전북 정읍) 공천자 정도였다. 반면 의욕을 가지고 출발했던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김영록 전 전남부지사, 임내현 전 광주고검장, 심재민 전 광주부시장, 이무영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고위 행정관료와 송두영·정경준·정기남·

김승남·배종호·민형배씨 등 정치 신인들은 숫자와 규정의 틀에 갇힌 공천 심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탈락했다.

◇당내 세력판도=공천 결과로 보면 당내 세력판도의 변화가 감지된다. 구 민주당 출신과 정동영계가 위축되었지만, 손학규계와 친노그룹이 선전했다. 구 민주당 출신 중 공천 확정자는 김효석·이나연·최인기 의원과 김영진·추미애·이용삼·심재권·김성순·박주선 전 의원, 성장현 전 서울 용산

구청장 등 10명 남짓한 수준이다. 정동영계도 이용희·양형일·채수찬·이근식·장복심 의원 등과 정기남·김영근·오홍근씨 등 원외 측근들 상당수가 공천 장벽을 넘지 못했다.

반면 손학규 대표계로 분류되는 김부겸·최규성·조정식·정봉주·우상호·신학용·송영길·이기우 의원 등을 무난히 공천을 받았고 이재학·강훈식·김문환씨 등 원외 측근들도 공천을 받았다. 정동영계가 대부분 호남에서 출마, 치열한 경쟁을 끊지 못한 대신 손 대표계는 대부분 공천 경쟁률이 낮은 수도권에서 출마해 공천장을 따냈다.

친노그룹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가 공천에 서 배제됐지만, 이광재·백운우·윤호중·유기룡·김태년 의원과 김만수·전해철씨 등 17명이 공천을 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비례대표추천위원회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통합민주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공천심사위원회 박재승 위원장이 20일 오후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참석차 제주공항에 도착,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 19일 남았는데...”

민주, 공천파행으로 후보 확정 지연

공천 후보들 선거운동 차질 불보듯

제18대 4·9총선이 불과 1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공천자 확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통합민주당이 뒤틀어졌다.

선거준비에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전략공천 갈등, 공천심사위원장과 당 지도부와의 갈등 등으로 공천 마무리가 미뤄지면서 상당수 지역구의 후보들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선거 준비 시간이 없다는 점. 25~26일 후보 등록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우상호 대변인은 브리핑에 서 “남은 시한으로 보면 내일까지 공천심사가 마무리되어야 원활한 총선이 치러질 수 있다”며 “지금 공천이 진행되는 것도 비정

상적인 상황인 데 내일까지는 공천심사를 마무리해야 정상적으로 후보등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선거홍보물 제작이 발등의 불이다. 29일까지는 부재자 투표용 선거홍보물 제작을 완료해야 출마자 본인이 해당 지역구 투

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전략공천 후보선정 작업이 박상천 대표와 공심위 간의 갈등으로 ‘나침’이 늦어지고 있다. 때문에 전략공천을 노리고 있는 인사들은 밭을 등등 구르고 있다.

또 대다수 지역구에서는 중앙당의 지원이 늦어지면서 기본 자금과 지역사무소 개설을 하지 못해 어우성을 치고 있다.

더욱이 큰 문제는 공천작업이 지연되면서 선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 당초 ‘개혁공천’의 가치로 출범한 공천작업이 ‘용두사미 공천’, ‘파행 공천’으로 전락하면서 자칫 당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전략공천 후보선정 작업이 박상천 대표와 공심위 간의 갈등으로 ‘나침’이 늦어지고 있다. 때문에 전략공천을 노리고 있는 인사들은 밭을 등등 구르고 있다.

또 대다수 지역구에서는 중앙당의 지원이 늦어지면서 기본 자금과 지역사무소 개설을 하지 못해 어우성을 치고 있다.

더욱이 큰 문제는 공천작업이 지연되면서 선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 당초 ‘개혁공천’의 가치로 출범한 공천작업이 ‘용두사미 공천’, ‘파행 공천’으로 전락하면서 자칫 당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방 전문가 김동신
예산 전문가 장병완
구제 여론

불합리한 공천과정서 고배

“경륜·인적 네트워크 살려야”

통합민주당의 4·9공천이 ‘미완의 개혁’으로 마무리되면서,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중진과 참신한 인재들에 대한 동정론과 함께 이를 비례대표로 발탁·구제하는 등의 정치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역의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여론조사 경선 등 불합리한 공천과정의 문제점을 뒤늦게나마 보완하고, 고배를 마신 정치인들에게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선 비례대표 공천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공천을 통한 구제 대상으로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은 광주 북구갑 공천에서 탈락한 김동신 전 국방부장관과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장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06년 5·31지방 선거를 앞두고 구 민주당의 삼고초려로 광주 북구갑 위원장직을 맡아 5·31선거

를 압승으로 이끈 인물이다. 하지만, 막상 자신은 이번 4·9총선에서 현역에게 유리한 여론조사의 관문을 넘지 못하고 아깝게 탈락했다. 김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에서 국방부장관을 지냈으며 호남 최초로 육군참모총장을 지내는 등 호남 군 인맥의 상징적인 존재이자 국방전문가로서, 지역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특히 같은 호남출신인 ‘꽃꽂장수’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이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영입된 이후엔 지난 3년간 김 전 장관과 함께 한 지역민들의 동정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장 전 장관 역시 30여년간 중앙정부의 기획·예산분야에서 근무한 예산전문가로서, 중앙에서 쌓은 경력과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할 기회를 잊어버리게 된 대 한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장 전 장관은 특히 기획예산처장관 재임시절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 확보를 지원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각종 현안 사업 지원에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구제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총행기자 redplane@

광주 서갑, 서울, 전남 무안·신안 공천

빠르면 내일 후보자 확정

이 25일이라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 23일이나 24일께 공천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민 여론조사 경선에서의 문자 메시지 전송 등의 말썽으로 후보자 확정이 지연된 광주 서구 갑과 서구 을의 후보자 확정은 일단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은다는 복안이다.

공심위가 재가동되거나 임시 공심위가 구성될 경우 당 지도부 서갑·서서, 최고위원회의 의견 수렴

무안·신안, 흥영기·김성철 거론

의 후보자 확정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담아서 보낸다는 것이다.

무안·신안은 전략공천 지역이라는 점에서 당 지도부와 공심위원장의 후보자 확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공심위 파행으로 무안·신안 지역이 이르면 오는 22일이나 후보자가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 전략공천 후보로는 김성철 전 국민은행 부행장과 흥영기 전 서울경찰청장, 주태문 조직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3월 22일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날”입니다

“물”은 우리 생명의 근원

한방울의 물이라도 소중하게 사용합시다

미래우리

제2회 광주 대구 수돗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원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유역환경

영산강유역환경